







**부산진구역사길 - 서면이 지닌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어보는 여행**

지점	사진	내용
<p>황금신발 테마거리</p>		<p>1960년대 이후 근대 공업화 과정에서 부산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였던 6대 신발공장이 성업했던 부산진구는 황금신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황금신발 발자국이라는 주제로 부산 신발산업 연혁, 신발 공장 노동자의 스토리텔링 패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p>
<p>부산진구 상징 조형물</p>		<p>부산진구의 옛 상징 조형물로 1997년도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조형물의 소용돌이 형상은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으로 금융·상업·유통·교통·정보가 집중되고 세계화 시대에 세계 속으로 퍼져나감을 상징한다.</p>
<p>황령산 봉수대 모형물</p>		<p>황령산 봉수대는 과거 해운포로 들어오는 왜적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현재는 부산진구의 소중한 역사 교육 문화자산이다. 봉수는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급한 소식을 전하였던 통신제도를 말하며, 근대화된 전화 통신체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중요한 통신수단이었다.</p>
<p>서면문화로 부산탑 모형물</p>		<p>부산탑은 1963년 부산직할시 승격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서면로터리 중앙에 세워져 오랜 세월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후 1981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건립 사업으로 철거되었지만, 부산탑의 1/10 크기로 제작된 축소모형이 서면역 9번 출구 인근에 설치되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p>
<p>영광도서</p>		<p>영광도서는 1968년 설립된 서점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산지역 대형 향토서점으로는 사실상 유일한 곳이다. 창업주 김윤환 대표가 18세 때 함안에서 부산으로 와서 고생 끝에 서면에 작은 서점을 열었고, 현재 17층 규모의 새 서점 건물을 지어 옛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p>
<p>4·19혁명 진원지</p>		<p>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대통령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서면로터리 부산은행 부전동 지점 정문에는 4·19혁명진원지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곳은 과거 부산진경찰서가 있던 곳으로 시위 학생들이 경찰서로 몰려와 자유와 독재 타도를 외치던 장소이다.</p>
<p>스웨덴참전 기념비</p>		<p>6·25전쟁 발발 후 스웨덴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여 부전동에 야전 병원을 개설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엔군과 한국군 전상자 치료 및 대민 의료 구호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스웨덴의 의료 지원 활동을 기념하고 양국 국민간의 영원한 친선을 위해서 기념비가 제작되었다.</p>

**서면근대산업 유산길 - 근대산업의 유산을 둘러보고 현재를 만나는 여행**

지점	사진	내용
전포카페거리		전포카페거리는 2017년 뉴욕타임즈가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로 선정한 곳으로 초기에는 철물·공구상가가 번성한 지역이었다. 이곳에 젊은 창업주들이 다양한 카페와 공방, 식당을 열면서 개성 있는 카페거리가 형성되었다. 2017년 제1회 전포카페거리 커피축제가 개최되면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진행되는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동천은행나무길 (서면근대유산 탐방길)		동천은행나무길은 보행중심의 넓은 인도가 조성되어 새로운 청년문화 명품거리로 거듭나면서 매년 아트프리마켓, 거리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한 과거 부산 경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업들을 소개하는 서면근대유산 탐방길이 형성되어 있어 부산진구의 문화와 역사가 함께 모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부전도서관		부전도서관은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1963년 개관 이래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용해온 곳이다. 현재는 건물 시설의 노후화로 휴관중이며, 부산시청, 부산진구청, 부산시교육청 3개 단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부전도서관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차종점비		부산의 전차는 19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로 일본인 들이나 여행객들이 위락 시설이 많은 온천장을 찾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1968년 시설의 노후화와 회사 적자 누적, 도시개발 문제 등의 사유로 전차 운영을 전면 중단 하게 되었고 버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옛 제일제당터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서면 동천변에 1,000평이 넘는 제일 제당 공장이 들어서며 백설표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업자본이 성장하여 산업으로 발돋움한 시발점으로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다. 이후 2005년 시설 확장을 위해 공장이 양산으로 옮겨졌고, 현재 그 자리에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다.
동천약어상		동천약어상은 동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 동천 물이 정화되어 물고기가 돌아와 뛰노는 것을 형상화한 구조물이다. 해와 달을 상징하는 원을 배치하고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5개의 기둥을 세워 인, 의, 예, 지, 신 다섯 방위를 잡고 각각의 높낮이를 달리 두어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강수영열사 추모비		기념비의 정식 명칭은 ‘4·19혁명 고 강수영 열사 추념탑’으로 당시 경남공고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수영 열사는 1960년 4월 19일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하는 거리행진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순국하였다. 고등학생이 주축이 된 시위 과정에서 부산 최초로 순국한 강수영 열사를 기리기 위해 학교 교정에 추념탑을 세웠다.

**시민공원길 - 부산시민공원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자연휴양 여행**

지점	사진	내용
공원역사관		부산시민공원의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한제국 말기 평화로운 농토, 일제강점기때 경마장 및 군속 훈련소, 미군주둔기의 캠프 하야리아, 그리고 부지 반환요구, 공원조성시기 등의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다양한 전시물이 가득하다.
문화예술촌		캠프 하야리아 당시의 하사관 숙소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소규모 공연장(연습장) 및 전시장, 작품창작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흔적극장		미군들의 위락과 사병교육을 위해 한국전쟁 시기에 지어진 영화관으로 주로 미국 현지 개봉 영화를 직수입해 상영하였다. 지금은 데크와 잔디블럭 등을 설치하여 약 100여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시민사랑채		미군부대에 거주하던 미군 가족과 미국인 등을 위해 설치한 한국 최초의 미국인 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세미나실, 다목적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다솜관		캠프 하야리아 당시의 장교관사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실 대관이 가능한 공간과 개인 애호가, 취미 동호회 등의 작품 전시를 위한 갤러리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물터		이 우물은 범전동 돌출마을에서 4대째 거주하던 박규섭씨 자택에 있던 것으로 약 120년간 범전동 일대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된 개인 소유의 우물이다. 상시 상수도가 없어 이웃들과 모두 나눠 마시는 식수로 공유하였고 소통의 장소로써 이용되었다.
미로정원		높이 1.5m 정도의 애기동백 2,400여 그루를 복잡한 미로형태로 심어 조성하였으며, 면적은 약 1,200m <sup>2</sup> (약 360평) 정도이다. 통과 자체로도 체험이 되고 팀을 나누어 술래잡기 놀이도 가능한 곳이다.

**도심힐링길 - 도심 속 부산의 지역사를 알아가는 힐링 여행**

지점	사진	내용
하마비		<p>하마비는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 내려라”(하마)는 뜻을 새긴 돌기둥이다. 구전 설화에 의하면 고려 때 동래 정씨 2세 정문도 공의 묘소가 화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분묘 입구인 이곳에 내려 경의를 표하고 가라는 하마비를 세우게 되었고 하마정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p>
추원사, 추원사기 (화지공원)		<p>화지공원 내 위치한 추원사는 동래 정씨 문중의 시조 사당으로 부산의 전통과 지역사를 돌이켜 보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의의가 있다. 추원사 앞에 놓인 비석 ‘추원사기’에 의하면 추원사에는 동래 정씨의 1대에서 6대까지 총 14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추원사의 소유자 및 관리자인 동래 정씨 대동중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4회의 향사를 지내고 있다.</p>
부산진배롱나무 (화지공원)		<p>배롱나무는 원산지가 중국이며 부처꽃과로 꽃은 7~8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맺힌다. 정묘를 조성할 때 양 쪽에 배롱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원래의 나무는 죽고 옆으로 새로 뻗어 나온 나무가 현재와 같이 자랐다. 이 나무의 수령은 800년 이상으로 천연기념물 168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고유명사 ‘부산진배롱나무’라고 불러야 한다.</p>
정묘 (화지공원)		<p>정묘는 화지 공원에 있는 동래 정씨 2세인 안일 호장 정문도 묘와 동래 정씨의 시조 묘역이다. 이곳에는 동래 정씨 문중의 재실인 추원사와 화지사, 시조 묘 등이 있다. 정묘비는 정문도의 정묘에 세워진 묘비로, 비문의 내용을 통해 선조의 활동 및 문중의 동향을 알 수 있다.</p>
에코브릿지		<p>에코브릿지는 부산시민공원과 화지산을 이어주는 육교 형태로 만들어진 생태연결로이다. 야간에는 주로 동물의 이동통로, 주간에는 공원 이용객의 통로 확보를 위해 만든 현수교 형식의 다리이다. 규모는 폭 8m, 길이 56m로 동물의 서식지 단절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공간이다.</p>
시민공원 숲 속 북카페		<p>캠ป์ 하야리아 사령관의 숙소로 쓰였던 곳으로, 지금은 ‘숲 속 북카페’로 리모델링하여 독서와 음악 감상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p>

**어린이대공원길 - 자연 속 현충의 정신이 깃든 길을 걷어보는 여행**

지점	사진	내용
부산 평화의 소녀상		일제강점기 기간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다.
항일학생의거 기념탑		1940년에 일어난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리는 기념탑으로 당시 구덕운동장에서 일제의 제2회 전력증강 국방경기 대회에 참가한 부산상고와 동래고 학생들이 일본인 심판의 부정판정에 항거해 거리시위를 벌이고 노다이 관사를 습격하였다. 이는 일제의 통제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 일어난 대규모 항일학생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요산 김정한 문학비		김정한 선생은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고등학교에서 수학중 양산 농민 봉기사건에 관여하여 피검되었고, 그 후 항일 운동에 참여하여 수차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잇달아 탁월한 작품활동을 하면서 민족문학의 새길을 전개하였다. 시대의 중심에 서서 시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것을 비판 하는데 힘쓴 작가이다.
사명대사 동상		임진왜란 후 부산지방에 머물며 왜인의 재침을 염려하여 부산진성을 축조하신 사명대사의 공적을 기리며 구국 충의를 같이 전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박재혁의사 동상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는 무장항일독립단체인 의열단의 단원으로 단장 김원봉으로부터 부산경찰서 폭파와 서장 하시모토 암살을 지시받아 행했던 독립운동가로, 애국 충정과 백절불굴의 굳은 지조를 후손에게 영원히 남기기 위해 1998년 동상을 건립하였다.
헌7학병 6·25 참전 기념비		6·25전란으로 국가 위기 때 부산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1,661명이 구국의 일념으로 육군헌병학교에 자원 입대하였다. 이들은 전국 격전지에 배치되면서 전투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2000년 제50주년을 맞이하여 헌7학병 동지들이 학생으로 참전하여 이룩한 숭고한 조국 사랑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성지곡수원지 댐 (여수지, 침전지)		성지곡수원지는 부산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1909년에 건립된 상수도 수원지로, 1972년 낙동강 상수도 취수 공사가 완공되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기능이 중단되고 현재는 호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여수로는 당시 하류 거주 농민들의 수원공급을 위한 것이며, 침전지는 수원지 내 거미줄 처럼 포설한 집수수로를 따라 물을 모아 저수지 댐을 통해 토사 등을 침전시키는 곳이다.

**우리문화감성길 - 자연 속 현종의 정신이 깃든 길을 걸어보는 여행**

지점	사진	내용
부전역 1번출구		<p>부전역 1번출구는 동해선과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교통 거점으로, 부산진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도심의 관문이다. 이곳에서 서면과 부전시장, 전포카페거리 등 부산의 대표 상권과 문화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 보행 동선이 형성되어 있다.</p> <p>최근에는 부전역의 상징성을 표현한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부전역을 찾는 이들에게 부산진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기념 촬영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p>
부산진 별빛산책길		<p>부산진 별빛산책길은 부산진구 범전동에 위치한 특별한 길이다. 이 길은 고보조명과 빛 조형물을 이용하여 약 400m의 4개 구역 별 야간 빛 테마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1구간은 빛의 꽃길, 2구간은 별빛길, 3구간은 바다 물결 빛길, 4구간은 녹색빛길로 이뤄져 있다.</p> <p>먼저 꽃길은 사시사철 꽃으로 둘러싸인 채 걸을 수 있고, 다음 이어지는 별빛길은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땅에 그려놓은 듯하다. 다음은 넘실대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바닷길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잎들로 구성되어 한 발짝 잎사귀 위를 걷는 것 같다.</p>
공원역사관		<p>부산시민공원의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한제국 말기 평화로운 농토, 일제강점기때 경마장 및 군속 훈련소, 미군주둔기의 캠프 하야리아, 그리고 부지 반환 요구, 공원조성시기 등의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다양한 전시물이 가득하다.</p>
문화예술촌		<p>캠프 하야리아 당시의 하사관 숙소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소규모 공연장(연습장) 및 전시장, 작품창작 체험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금속·섬유·레진공방 체험 희망시 예약 필요 051-804-2258</p>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체험관		<p>2023년 10월, 교육·체험·강연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인 국악체험관이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상시 국악 체험 공간으로 외벽은 미디어파사드, 지하1층은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한 몰입형 실감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전시실, 지상 1층은 영남민요 연주 실감형 체험 공간 미디어월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매주 화-토요일, 10:00-18:00 운영합니다.</p>